

한국문화교류 소식

36호 2020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ICKC와 나!



이 효 정

ICKC 운영위원,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존경하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위원 이효정입니다. 존경하는 ICKC 회원들이 보시는 이 소식지의 고명한 지면에 기고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평소에 글을 쓴다는 것이 무척 어렵고 부담스러워 쓰는 일을 매우 두려워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평소 ICKC에 대하여 생각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1년 여름 출국한 이후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2004년 봄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독일인 남편을 따라 인생 삼모작을 설계하며 사랑하는 모국 대한민국으로 역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처음 3여 년 간을 참 많이 울고 지냈던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향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화충격’ 때문이라고도 했지요.

그때부터, ‘문화충격? 문화란 무엇이지? 그 충격이 한 인간의 내면을 이리도 슬프게 망가트릴 수 있는가? 문화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어디

문화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으로 또 다른 정신으로 창조될

새로운 문화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에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젊은 시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수병에서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오늘까지 잘 지내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수병과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 준 한국의 문화! 그 문화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문화 ‘오뚝이 정신’이었습니다.

교육 · 교양 · 종교 · 스포츠 · 오락 · 취미 등 생활과 습관 속에서, 다양하게 다른 분야의 문화들 속에서 매일을 대면하면서 호흡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잊혀져가는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각자의 강한 의지로 만들어 내는 개인의 정신문화의 계승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치관들이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땅의 문화로 자자손손 대물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국가와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우울증을 치료 했던 것은 현대의학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문화, 칠전팔기 오뚝이 정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는 늘 오뚝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오뚝이가 한국인인 나의 정신문화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했고, 이후 오늘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문화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뚝이 정신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대의 사람들, 한 방향으로 달려 온 그 분들의 정신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는 곳이 바로 우리 ICKC입니다.

재외동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한국노래 1위는 ‘고향의 봄’이라고 합니다.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시골의 풍경과 시골의 초가집을 상상으로 그려 봅니다. 자물쇠도 없고 초인종도 없는 그런 시골집. 언제라도 싸리문을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따뜻함. 제게 ICKC는 자물쇠 없는 시골 싸리문 같은 정다움이고, 그런 싸리문 같은 열려 있는 반가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한 제가 ICKC를 만난 것은 시골 고향집의 싸리문을 밀고 들어가듯 고향을 만난 그런 따뜻함,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다른 분들도 ICKC를 만난 저와 같은 행운으로 고국에서의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는 개인의 정신문화를 포함, 인류 문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대다수 학자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으로 또 다른 정신으로 창조될 새로운 문화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진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ICKC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논의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ICKC는 희망을 가진 민족, 강인한 정신문화의 주인공들로서 오뚝이 같이 우리 문화의 융성과 국제 교류의 한 주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국권을 상실했을 때 3·1 운동 후 상하이로 망명했다가 쫓겨 다니면서도, 다시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가 융성한 나라'를 꿈꾸셨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백범 선생의 말을 다시 되새깁니다.



저는 ICKC가 높은 수준의 한국의 정신문화의 전령자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러한 혜안으로 협회를 창립하신故 이광규 초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박갑수, 조남철 두 분의 전임 이사장님, 그리고 많은 일에 희생적으로 숭선 수범 봉사 하시는 현 위호인 이사장님과 박의근, 이형모 등 여러 이사님, 전영섭, 박원출 두 분 감사님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 좋아 하는 글을 남기며 이만 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언젠가 답을 찾으면
불가능은 없다.

_ 펄 벅



세계태권도연맹 · 아시아발전재단 ‘태권도 케어스’ 업무협약서 체결 및 2020년도 지정 기부금 15만불 전달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총재 조정원)과 (재)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은 2020년 4월 22일 WT대회의실에서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 국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목적의 ‘태권도 교육 및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조정원 WT 총재와 김준일 ADF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직후, 김 이사장이 2020년도 ‘ADF-WT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지정기부금 15만 불(약 1억 8,400만원)을 조 총재에게 전달했다. 이번 ADF 측의 WT에 대한 지정기부금 전달은 지난 2019년 1월 25일 1억 원 전달 이후 두 번째이다.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라 ADF와 WT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태권도 교육(‘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기타 양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분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업무협약서 체결 및 지정기부금 전달 행사를 위해, ADF측에서 김 이사장 이외에 조남철 상임이사 그리고 오종남 이사가, WT측에서 조 총재 이외에 서정강 국제협력국장 그리고 강석재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담당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정원 WT 총재는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 증진에 힘쓰는 아시아발전재단에 감사드리며, WT는 2019년 성공에 힘입어 아시아발전재단의 2020년 태권도 케어스 지정기부금이 아시아 지역 태권도 저개발국 고아, 소년원생, 가정폭력 피해 여자 아이, 자연재해 지역 피해자 등 소외계층에게 더욱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ADF 이사장은 지정기부금 전달식 직후 인사말에서 “아시아발전재단은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전 국민과 함께 적극 응원하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도 ADF-WT 지정기부금 1억 원은, 네 팔(소년원생 및 가정폭력 피해 여자 아이), 스리 랑카(길거리 어린이 및 전쟁 고아) 그리고 캄보디아(성폭력 피해 여자 아이 및 빈민가 남자 어린

이) 1년간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WT와 ADF는 2020년 지정기부금을 기존 네 팔, 스리랑카 및 캄보디아 프로젝트 이외에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발전재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그리고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가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조정원 WT 총재(左)와 김준일 ADF 이사장



▲ ADF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지정기부금 전달식 기념촬영

‘코로나 19’에도 쉬지 않고 ‘한국’을 배웁니다



김 미 연

미국 뉴저지한국학교 교사

뉴저지한국학교는 미국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Bergen County)에 있는 테너플라이(Tenafly)와 클로스터(Closter) 두 개의 타운에서 미국의 중학교 건물을 빌려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계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32개의 학급이 있으며,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 36명, 학생 56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 동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학교로, 뉴저지 주에서 공식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1983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3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에서 3월 4일 처음 ‘코로나19’(COVID-19)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되었다. 3월 8일, 뉴저지 주 공립학교 휴교령이 결정되었고 우리 학교도 휴교를 하게 되었다. 휴교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회의를 하였고 ‘온라인 수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 학교 공지사항과 숙제, 수업 동영상 자료 등을 학생, 학부모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ZOOM’을 이용한 화상 수업을 통해 계획된 수업이 지장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인 교사들은 저녁시간에 교장 선생님을 통해 교육을 받고 서로 부족한 것을 배우고 알리면서 ZOOM 사용법을 익혔다. 저학년과 특과 수업은 동영상 제작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2학년 이상은 온라인 대면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에 사용할 자료 제작이 가장 급했다.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자신이 제작한 다양한 자료들을 올렸고, 매일 저녁 미팅에서 교장선생님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제작 아이디어를 함께 의논하는 등 10일 정도의 기간에 놀라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3월 20일 금요일, 첫 온라인 수업이 아직도 생생하다. 역사 교재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만든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으로 8학년 한국 역사

수업을 했다. 45분 수업이 순식간에 끝났다. 이어 6학년 문화 수업이 지나고 입이 바짝 말라서 물 한 병을 다 마셨다. 막연히 생각만 했던 미래의 수업이 현재에 이루어졌고 뭔가 모를 감정들이 가슴에 가득했다.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수업을 마치고는 드디어 한주 수업을 마친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다.

온라인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학교 연락망에는 ‘수업 전원 참석’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고 “수업이 재미있어요!” 라는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이 올라오면서 교사들이 힘을 얻었다. 월요일 저녁, 온라인 교사회의에 모인 교사들은 수업 중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교실 수업보다 집중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신기해서 화면에 낙서도 하고 배경 사진을 자주 바꿔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줌채팅을 해요, 40분이 되어 수업이 끊겼어요, 학생들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등 수업 상황과 여러 문제점을 놓고 연구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온라인 수업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수업 진행에 자신이 생겼으며,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참여에 큰 힘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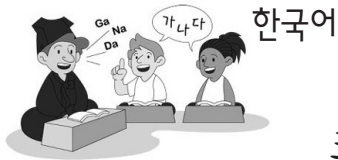
10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앰블런스 소리와 경찰차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슬픈 소식도 들려왔다. 우리 학교 선생님 가정에도 슬픈 소식이 있었다. 서로 위로하고 걱정하며 2학기 15주 수업에서 13주 수업을 마쳤고 이제 2주의 수업이 남아 있다. 지금은 앰블런스 소리가 적어졌고 밤 8시 이후의 자가 격리가 조금씩 분야별로 해제되고 있다. 공립학교 졸업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7월 첫째 주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공립 초중고의 휴교령 해제 날짜는 미정이다.

교사들의 한국어 온라인 수업 준비에 대한 열정은 학교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지 않게 돕고 미국에 사는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한국계 학생으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 자라 주기를 바라는 교사의 간절한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매주 즐겁게 학생들을 만나며 수업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을 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며, 수업 준비와 졸업식 준비로 여전히 바쁘다. 이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국인 한국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잊지 않게 도우려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마음과 열정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



▲ 뉴저지한글학교 온라인 수업 모습과 교육 자료



코로나19 제한조치 와중에도 러시아인들 ‘한류 열기’ 여전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진 와중에도 러시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러 한국문화원(원장 위명재)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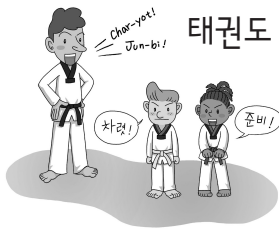
5월 27일(현지시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현지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문화원에서 진행되던 한국어 강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다. 이후 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동영상 강의는 지금까지 5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강좌로 떠올랐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들이 수준별로 등급이 나뉜 온라인 강의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 ‘세종학당’은 교실 수업을 진행하던 때부터 매년 봄·가을 학기에 각각 2천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등록해 전 세계 세종학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기사 출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2020년 05월 28일



▲ 주러 한국문화원 한국어 강좌 교실 수업 모습 (주러 한국문화원 제공)



세계태권도연맹 · 태권도박애재단, 내년 중국서 평화포럼 개최

세계태권도연맹(WT)과 태권도박애재단(THF)은 2021년 가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중국 우시에서 'WT-THF 평화포럼'을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 서울 중구의 WT 사무국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THF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2021년은 경희대 설립자이자 조정원 WT 총재의 아버지인 고(故) 조영식 박사의 제안으로 유엔이 '세계 평화의 날'(9월 21일)을 승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WT는 "내년 평화포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WT-THF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제스포츠연맹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THF 이사장이기도 한 조정원 총재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한 THF를 함께 활용하자고 2018년 국제스포츠기구에 제안했고, 현재 국제유도연맹을 비롯한 9개 국제경기연맹이 WT와 양해각서를 맺고 공동으로 난민 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편, WT와 THF는 난민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THF 이사회는 오는 11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전문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0년 05월 22일



▲ 태권도박애재단 이사회 화상회의 모습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20년 ICKC 재외동포유학생 장학증서 수여

지난 5월 21일(목), 서울 마포구 ICKC 사무실에서 2020년 'ICKC 재외동포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본 장학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공하는 우수한 재외동포 유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돕고, 이들 장학생이 한국과 해외동포사회를 잇는 튼실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년도 수상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브둘라조노



브 아자맛 학생은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영학과에 재학하며 안산시 상록구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2019년에는 '경찰의 날' 감사장 표창을 받기도 한 인재이다. ICKC 위호인 이사장이 아자맛 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했고, 아자맛 학생은 “한국에서의 노력이 이번 장학금으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한국 및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0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0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기연, 박관용, 박미화, 박신재,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한관, 조두연, 조준연, 추호석,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0년 1월 1일~2020년 5월 31일까지)

총액 : 12,955,67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재단 수석부회장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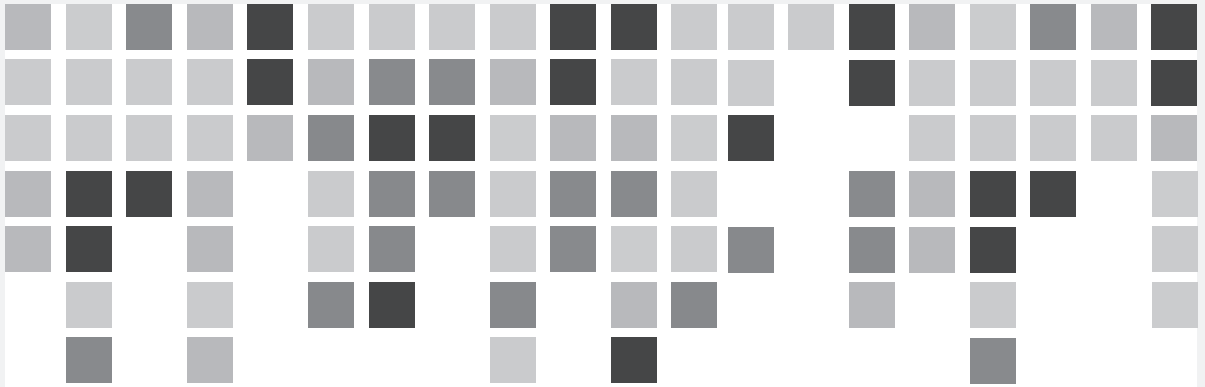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 30%) 비율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로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